

자원봉사와 수행은 '하나'

'보현원각봉사단' 출범... 교육·훈련 통해 전문화

사찰 내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가 조직, 교육, 훈련을 통해 전문화되고, 일주문 밖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4월 7일 대웅전에서 '보현원각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깨달음의 사회화'를 천명했다.

이날 초대 봉사단장으로 추대된 무진행 단장은 인사말에서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이다"며 "사찰 내에서 일회성에 머무르던 자원봉사를 이웃들에게 확대하고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지 도제 스님도 격려사에서 "원각사 창건 100년 동안 가람의 변화는 많았으나 자비실천행은 미진했다"며 "신심과 원력으로 깨달음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봉사단 발대식에는 70여명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했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보현 등 7개 반으로 나누어 배정됐다.

향후 보현원각봉사단은 사찰행사는 물론 복지단체 및 불우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목욕, 청소, 도시락배달 등의 자비행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봉사단체와 연계해 외국인노동자, 소아암 투병지 원사업을 위한 모금과 캠페인을 전개할



불교의 생활화와 불교자원봉사의 저변확대를 위해 '보현원각봉사단'이 광주 원각사에서 4월 7일 발대식을 가졌다.

예정이다. 보현원각봉사단은 봉사단원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 강사 초빙과 전문교육 기관에서의 교육을 실시하며, 정기법회 사찰순례로 신심과 단합도 도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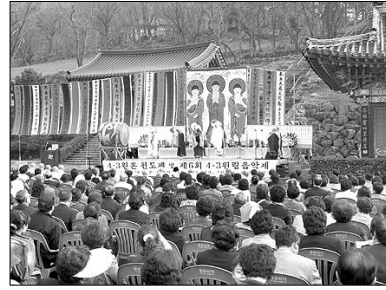
원각사 이진중 사무장은 "그동안 사찰 내에서 펼쳐지던 다양한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대사회활동으로 승화시키고자 한

다"며 "전문성 있는 불교사회봉사단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현원각봉사단 참가자들은 발대식에 이어 108참회로 자비실천행 결의를 다지고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로부터 '봉사자의 마음가짐과 실천' '대만 자제공덕회 활동' 등에 관한 강연을 청취했다.

글·사진/광주=이준엽 기자

제주 4·3 희생자 추모 관음사, 천도·음악제 개최



제주 관음사주지 용주는 4월 3일 '4·3 원혼 천도제와 위령음악제'를 개최하고 희생영가들의 천도를 기원했다.

이날 천도제에는 지역 사암 스님과 기관장, 유가족,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도민 화합을 발원했다.

천도제를 주관한 주지 용주 스님은 "관음사는 4·3당시 유격대와 토벌진압군 사이 치열한 격전지였다"며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도민의 화해와 상생을 기원하고자 해마다 천도제와 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부 천도제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명인 동회 스님과 전수자들은 제주 164곳의 4·3 희생 영혼 위패가 모셔진 영단에서 나비춤, 현수바라, 밭고 등 천도 의식을 펼쳤다.



도갑사 대웅전 중창 기공식

도갑사 대웅전이 400년만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된다.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3월 30일 대웅사 조실 천운,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과 금산사 원행, 송광사 영조, 화엄사 종삼, 월정사 정념 스님 등 교구부사 주지 스님들, 박준영 전남지사, 유선호 의원 등 지역 기관장, 신도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중창발사 기공식을 봉행했다(사진).

주지 월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대웅전에는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반출된 영암 32승신도를 모셔 복원해 봉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도갑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 75평 중층 건물로 내년 4월 준공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043)732-5560



생활 속 불교문화

'심청전'의 원류 곡성 관음사

지극한 효심에 눈먼 아버 눈뜨고

'심청전' 배경설화 간직한 백제 초기 사찰

끝까지 고을 고을 이름이 된 전남 곡성(谷城)은 '심청 고을'로 불리기도 한다. 이 지역을 지나다보면 곳곳에서 '효녀 심청'을 만나게 된다.

곡원이름은 물론 상호와 지역특산물에 이르기까지 '효녀 심청'은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고장 옥곡에 자리한 관음사 연기설화 고대소설 심청전 원류이기 때문이다.

조선 영조 5년(1729), 백매자(白梅子) 선사가 찬술한 <성덕산 관음사 사적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연기설화가 서술되어 있다.

요약하면 이러하다.

"장님 원랑(元良)은 흥법사(弘法寺) 금강불사를 위해 시주를 간청하는 상공 스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홍장(洪莊)을 아무런 대가 없이 시주한다. 지극한 효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화주승을 따르던 홍장은 황후를 구하려 백제에 온 중국사신을 만나 황후가 된다. 장님 아버지를 잊지 못하던 홍장은 자신이 원불로 모시던 금동관음보살상을 고국으로 보냈고, 옥곡 처녀 성덕(聖德)이 불교 바닷가에서 모셔와 관음사를 창건한다"

이 설화는 백매자 선사가

"젊은 시절 관음사에서 우한자라는 노스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기록할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관음사 사적기는 백제가 불교를 공인했던 때(384년)보다 80여년이 앞서 백제 분서왕(301년)때 창건했다고 한다. 백제 최초의 사찰이 되는 것이다. 관음사 연기설화는 1930년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 소개되면서 심청전의 원형, 배경설화로 국문학계에서 공인받고 있다.

17세기 말, 판소리가 정형화 되던 때에 백매자 선사의 관음사 사적기도 판각되었다.

이처럼 관음사에 전하는 효녀 홍장 이야기는 호남지역에 널리 퍼지면서

판소리 심청가를 이루게 된다. 특히 곡성과 이웃한 남원의 광한루가 판소리 춘향가의 무대인 것을 보면 지리산은 한국판소리 2대 명작이 탄생한 판소리 성지이기도 하다.

관음사는 곡성 검장산과 성덕산 사이 좁은 계곡을 타고 10리가량 거슬러 올라간다. 계곡 안에 자리한 사하춘도 '성덕마을'로 불리는데 연기설화에 등장하는 성덕보살에서 유래한다.

1700년 전, 홍장이 백제에 보낸 금동관음보살상(국보 214호)은 나라의 보



연기설화 '심청전'의 고증 자료인 관음사 원통전에 모셔진 관음보살상(국보 214호)

물이 되어 관음사 원통전(국보 273)에 자리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전각과 보살상이 불타고 말았다. 기이하게도 갯더미 속에서 관음보살상 얼굴부위가 온전히 남아 있어 옛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다.

관음사 주지 지인 스님은 "관음사는 내륙에 자리한 관음도량으로 유일하게 고승대덕이 아닌 재가자가 창건한 사찰이다"며 "가난한 장님 원랑의 선업공덕과 홍장의 지극한 효심이 널리 퍼져 아름다운 사화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곡성군도 2001년부터 매년 10월경 심청축제를 열고 효녀심청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 이준엽 기자

심향사, 나주발전 연등음악제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는 4월 22일 경내에서 나주발전을 위한 연등음악회를 개최한다.

나주지역 기관장과 시민초청으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는 전통등 전시회, 선요가 선무도 시연과 불자연예인 초청 공연이 펼쳐진다.

심향사는 불교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산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신도들이 3개월 동안 제작한 한지 팔모등 500여개와 불고기, 법고 등 전통등을 선보인다.

이준엽 기자



서산대사 탄신 486주년 기념 대흥사, 보살계·글쓰기 대회

해남 대흥사(주지 풍산)는 지난 4월 7일 서산대사 탄신 486주년을 맞아 '탄신대제 및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서산대사 영정이 봉안된 표충사(表忠祠)에서 열린 서산대사 탄신대제에는 천운(대흥사 조실), 여연 스님(일지암 주지) 등 각 사암 스님과 정진석 해남군시장, 탤런트 장현원, 김영란씨, 불자 등 5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천운 스님은 법어에서 "어느때보다 서산대사의 나라사랑, 인간사랑 정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대흥사 주지 풍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서산대사와

승군이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물려 이 땅에 불교가 성성하게 살아있게 되었다"며 "큰 스님들의 고귀한 뜻을 실천으로 빛내자"고 강조했다.

탄신대제에 앞서 대웅전에서 200여명의 불자가 천운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수지했다.

한편 서산대사 탄신대제를 기념해 대흥사 일원에서 열린 제12회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에는 해남군 관내 30여개 초·중·고교 재학생 500여명이 참석했다. 서산대사의 호국정신 계승과 향토사랑 고취를 위해 펼쳐진 글쓰기 대회 당선작은 부처님오신날 발표, 전시된다.

이준엽 기자

광주 BBS, 개국 11주년 공연

광주 불교방송(사장 이상진)은 개국 11주년을 맞아 오는 4월 20일 광주 시민회관에서 '축하공연 및 노래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희망의 방송, 청취자와 함께'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축하공연에는 가수 소명, 진국이, 주권기 등 불자가수들이 출연한다.

2부 애청자 노래자랑에는 예심을 통해 선발된 10개팀이 나와 기량을 선보인다. 이준엽 기자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일허스님의 장애우 휠체어 보시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불제자의 인연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정진함에 있어, 항상 소위된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소남의 작은 재주로 장애우들께서 조금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장애우 휠체어 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시어 그 뜻이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마도 보급에 동참하여 주시는 고마운 뜻과 장애우들에게 전달되는 내역을 지면을 통해 빠짐없이 공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암 주지 일허 합장

▷ 일허스님

- 부산에서 출생, 사미계수지, 송광사에서 구족계, 운곡,강장원 선생 사사
- 2001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 2002년 제1회 개인전, 달마·선화의 세계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 2003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졸업
- 2005년 한성대학교 박사 과정 재학중
-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지(現)
- 재적본사,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 달마도란?

달마도라 함은 윤필이 거친없이 힘차고 간결하며, 먹의 쓰임 역시 깨끗하여 탈속의 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평온해지는 불가사의한 그림이다.



달마도 大 / 10만원
달마도 小 / 5만원

직접 그리는 관계로 조금씩 작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장애우 휠체어 기금마련 달마도 보급운동에 동참하실 사찰이나,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달마도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주 관: 영천암 신도회, 수창정진회
- 후 원: 연꽃마을, 진각복지재단, 인천 청학사
- 후원계좌: 농협 811091-52-133201 (예금주:김영철)

대한불교조계종 영천암 주소: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리 산 200번지 / 전화: (055)356-2040, 011-867-4747